The China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5. 12. 9

12월 중앙정치국회의, 관전 포인트는?

경제/중국 **백관열**
kyb1006@ls-sec.co.kr

2026년 경제/정책 1차 예고편 공개

12/8,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 개최. 일반적으로 12월 중앙정치국회의는 내년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회의로 평가

1. 2가지 자신감: 5% 성장 목표 달성과 리스크 통제

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경제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이라 자신. 이는 양회에서 설정한 GDP 성장률 목표(5%)가 시장 우려와 달리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 주요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침체, 미중 갈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냄. 특히, '시스템 리스크 발생은 절대 용인 불가'라는 기존 표현이 삭제된 점도 리스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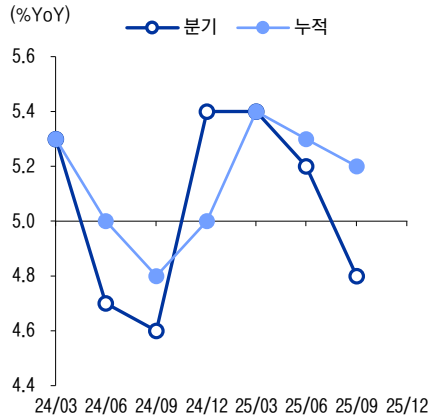
2. 부양 강도: 2025 > 2026 → 유동성 효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내년도 예상되는 경기 부양 강도는 올해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 정책에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와 수식어를 살펴보면 재정정책 앞에는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앞에는 '적절히 완화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내년에도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 다만, 부양의 강도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초(超)강력한 역주기 조절(단기 부양)' → '역주기 조절(단기 부양) + 과주기 조절(중장기 경기 안정성 중시)'로 전환. 즉, 2026년에는 올해와 같이 단기 부양을 위한 전면적 유동성 확대보다는 중장기 안정에도 초점이 맞춰지면서 선별적 유동성 확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2차 예고편인 중앙경제공작회의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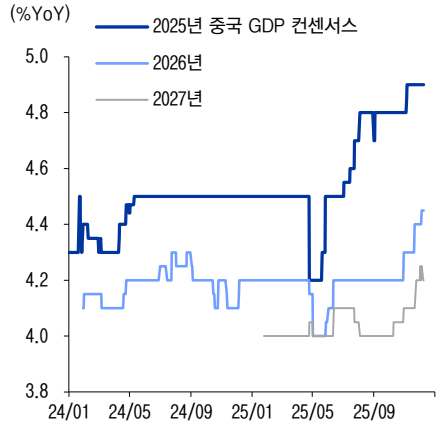
12월 중앙정치국회의를 통해 대략적인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다면, 12월 중순 전후로 개최 예정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를 파악 가능. 우선 순위를 미리 예상해보면 이번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내수 주도형 성장을 강조한 만큼 2026년에도 첨단기술/기술자립보다는 내수확대가 1순위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 결론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속도는 일부 완만해질 수 있겠으나, 내수 경기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 기조가 훼손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그림1 **중국 정부, 경제 성장 목표 달성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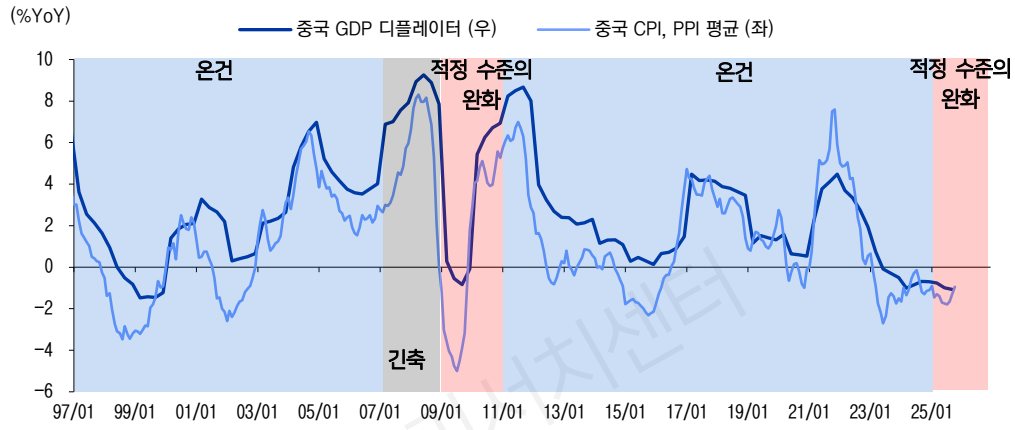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컨센서스 상향 가능성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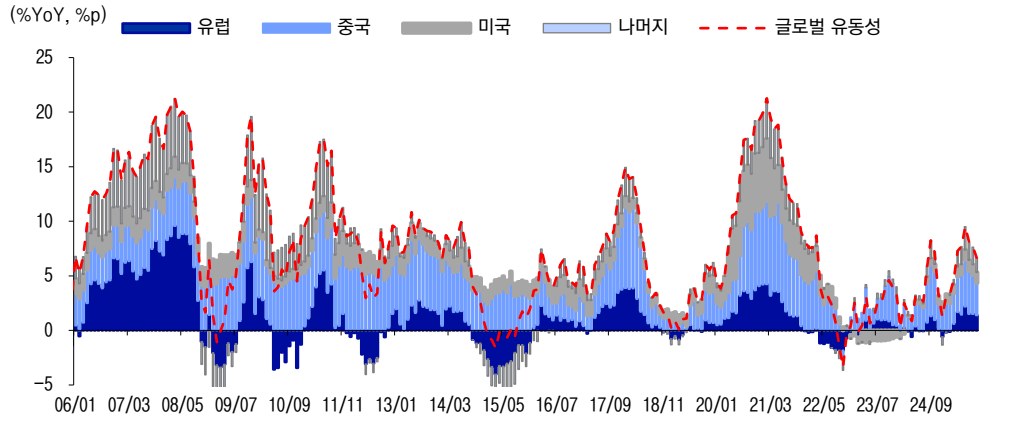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유지. 부양 기조 유지 시사



자료: 중국 통계국,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다만, 역주기 조절(단기 부양)에 대한 '초(超)강력한' 수식어 삭제 → 유동성 효과↓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내수 주도형 성장 강조. 2026 년에도 최우선 과제는 내수 확대로 채택될 전망

시기	주요 정책과제							
	1	2	3	4	5	6	7	8
2021년	R&D/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내수확대	개혁개방	식량안보	반독점	주거난 해결	탄소중립
2022년	경기 안정화	반독점	공급 사이드 개혁	R&D/첨단기술	개혁개방	동반성장	민생복지	
2023년	내수확대	산업 현대화	국유기업 개혁	개혁개방	리스크 예방	농촌진흥		
2024년	R&D/첨단기술	내수 확대	개혁개방	리스크 예방	농촌진흥	동반성장	친환경/저탄소	민생복지
2025년	내수확대	R&D/첨단기술	개혁개방	리스크 예방	농촌진흥	동반성장	친환경/저탄소	민생복지
2026년	내수확대?							

자료: 중국정부망,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백관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